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참가자용
안내서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참가자용 안내서

애틀란타 대교구내 소규모 기도중심 경청회 참가자용*

공동합의성에 관한 시노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18 장 20 절)

... 시노드의 목적을 상기하면, 이번 자문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심고 예언과 전망을 이루어 내며 희망이 꽃피게 하고 신뢰를 불어넣으며 상처를 감싸 매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내며 희망의 서광을 깨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따듯하게 하며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빛나는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예비문서 제 32 호 (프란치스코, 젊은이에 관한 주교대의원회의 개막 연설 [2018 년 10 월 3 일])

* 워싱턴 대교구의 '교구 시노드 자료집'을 일부 각색함.

목차

들어가며: 함께하는 여정.....	4
카톨릭 교회 내 시노드의 역사.....	5
시노드성이란 무엇인가?.....	6
시노드의 과정.....	8
기도중심 경청회 개요.....	9
토요일 반나절 일정.....	9
3 주 저녁일정.....	10
참가자 규칙과 소그룹 토론 과정.....	11
기도중심 경청회 질문지 - 소그룹 토론용.....	12
근본 질문.....	13
보조 질문.....	13
마무리 질문 - 성령님을 경청하기.....	15
시노드를 위한 기도: <i>Adsumus Sancte Spiritus</i>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	Error! Bookmark not defined.
용어집.....	17

들어가며: 함께하는 여정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온 교회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정기 총회에 초대하셨습니다.

시노드란 희랍어로, '함께'를 뜻하는 단어(*syn*)와 '길, 여정, 방법'을 뜻하는 단어(*hodos*)의 합성어입니다. '시노드'와 더 최근에 나온 단어 '시노드적'은 즉 '함께 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여정을 함께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시노드란 구두 발표와 서면 보고서로 점철된 또 하나의 회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노드란 *함께 여행하는 과정*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와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결정들을 함께 내릴 것입니다.

시노드 여정의 시작을 기념하는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강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시노드의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우리 모두,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역사의 길을 가시고 인류의 삶 속에서 나누시는 하느님의 이 “방식”을 구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시작”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함께 걷고” “만나다, 듣다 그리고 식별하다” 라는 시노드를 특징짓는 세가지 동사들을 묵상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노드는 하느님과의 대화와 흠숭과 기도 안에서 전개되는 영적인 식별의 과정이고 성직자 식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근본은 곧 기도입니다. 식별이란 시노드의 앞길을 비추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시노드가 교회의 관습이 되지 않도록 스터디 그룹이나 정치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의회가 되지 않도록 막아 주고 그것이 아니라 은총이 가득한 사건으로 성령으로 인도되는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해 줍니다.”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부자 청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우리 자신을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들의 내부 지향적인 폐쇄성과 낡은 반복적인 사목 방식들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느님께서 이 기간동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그 방향을.” (프란치스코 교황, 2021년 10월 10일)

카톨릭 교회 내 시노드의 역사

교회가 시노드로서 함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서있는 전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5 장), 베드로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았고 (사도행전 15 장 4 절), 이들은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듣고, 상의하고 식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듣고, 상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침묵 속에서 기도한 끝에야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지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교부들께서는 초대교회에서의 시노드성에 대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c. 30 AD - c. 500 AD). 이중 중요한 크리소스톰께서는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49 편 해설; 예비문서 11 참조) 제 1 천년기 동안 지역 교회들은 그 주교들과 함께 모여 각 지역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지역적 관습은 이후 광역, 보편적 (전교회적) 회의로 발전하였고 이 회의에는 주교,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러한 시노드적 관습은 주교들과 교황청이 교회 관련 의사결정을 점차 독점해가던 제 2 천년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의 친교를 강조하면서, ‘신성을 향한 여정에 나선 하나님의 순례자들’ 이라는 교회의 이미지를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의 하느님 백성이 있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지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룬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제 13 장).

교황 바오로 6 세께서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인 1965 년에 현대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구조를 마련하셨습니다. 교황 바오로 6 세께서는 이로써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도 주교, 신학자, 성직자와 평신도들 간의 협업과 논의가 지속되게끔 하고자 하셨습니다. 1967 년 이래 교회는 대략 매 2~3 년마다 주교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검토해왔습니다. 1967 년 이래 개최된 각 대의원회의에서 주교들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과 각 사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실제로 신부, 부제와 평신도들이 이들 대의원회의에 참가하여 주교들과 교황과 대화해왔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은 현행 시노드의 ‘새로운’ 한 측면으로서 각 교구장 주교에게 ‘시노드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그 교구의 말을 듣고, 주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호 경청과 자문이라는 시노드적 과정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시노드성이란 무엇인가?

이 과정 전체에 걸쳐 우리는 '시노드', '시노드성', 그리고 '시노드적 과정'이라는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 용어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모두 다 뜻이 같은 것이 아니냐구요?

간단히 정의하자면 주교 대의원회의 (주교 시노드)는 주교들의 모임으로서,

1. 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2. 또한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3.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의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교회법* 제 342 조).

주교 시노드에서 투표권은 시노드에 참가한 주교들로 제한됩니다. 다만, 성직자들, 신학자들, 교리 문답 교사들, 교회법 변호사들과 평신도 전문가들은 모두 주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주교 시노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성과 시노드적 과정은 주교의 모임이나 회의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행정 조직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노드성은 친교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과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노드란 모든 세례받은 이들의 친교로서, 신성을 좇으며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서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시노드성은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경청하고 말하며 기도하며 식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망과 염려들을 주교들의 마음과 손에 넘기는 일과, 주교들은, 교황 성화와 일체로서, 신앙과 윤리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해 신앙을 보존하고 전 세계에 걸친 교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교회가 '시노드적'이라 함은 하나의 근본적 사실에 관해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즉 각 세례받은 교인은 복음화의 주체 또는 행위자로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이러한 관점에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모임과 주교들의 회의 거행 또는 그 교회 내부 운영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예비문서, 10).

“사실 목자들이 모은 백성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거룩한 유산에 충실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형제적 친교를 맺으며 빵을 떼는 일과 기도예에 항구히 전념하여 “전해진 신앙을 고수하고, 실행하며 고백하면서 주교들과 신자들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예비문서, 13). 시노드성과 시노드적 과정은 다른 이들을 사안에 관여시켜 의결로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노드성의 일차적 목표가 교회에 민주적 절차들을 도입하여 교회가 행할 바를 다수결로써 정하게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시노드성은 전략적 기획을 반포하거나, 목표설정을 통해 성직자들의 교구 사역을 관리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시노드성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여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신성을 좇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온 교회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수호자이고 해석 자이며 증인으로서” 세우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 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역학이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시노드 과정에 대한 참여의 바탕에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라는 공동 사명에 대한 공유된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교계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적 과정이다. 같은 믿음을 나누는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루는 동의는, 바로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과 목자들의 가르치는 역할 사이의 효과적인 유대를 통하여 실현된다. 모든 시노드 과정에서 주교들은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교회 헌장 12 항)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식별하도록 부름받는다. 이 모든 시노드 과정은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함께 걷기’의 분명한 방식이다. (예비문서, 14; 인류의 빛, 12; CCC, 91-93 참조) 9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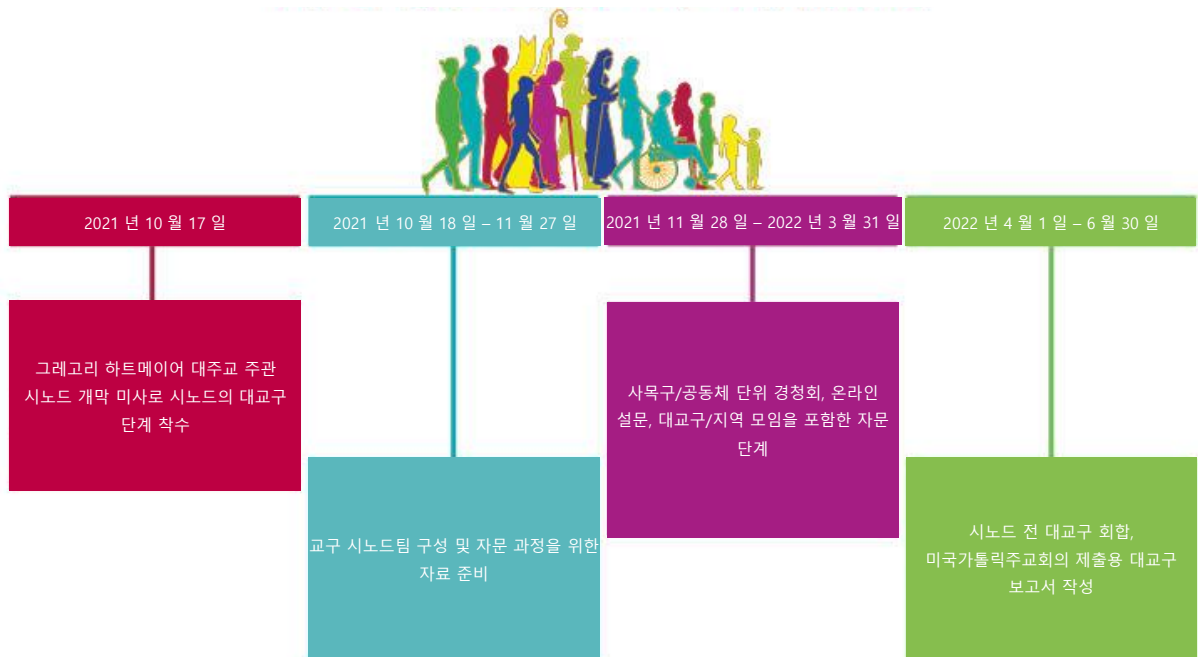
애틀랜타 대교구의 지역교회로서 이와 같은 시노드 과정에 착수하면서, 우리는 성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 장 19-21 절)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시노드의 과정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전지구적 시노드는 2021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개시하신 과정이며, 2023년 10월 세계주교시노드 총회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 16차 정기 총회). 전 세계적 시노드 과정의 세부 일정은 <https://www.synod.va/en.html>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일정은 시노드의 '교구 협의 단계'에 참여함에 있어 애틀란타 대교구 활동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속된 기도와 이행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애틀란타 대교구의 시노드 일정



기도중심 경청회 개요

토요일 반나절 일정

(3 시간 15 분 **)

환영 차담, 친교, 출석 확인 (생략 가능, 30 분)

- 환영사, 행사 개요 및 개회기도 (10 분)
- 시노드 과정 개요 및 참가자 규칙 설명 (10 분)
-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시간 (25 분)

- 소그룹별 발표 및 토론 (2 시간 15 분)
 - 핵심 질문 [25-30 분]
 - 보조 질문 [90 분]
 - 기도 및 마무리 질문 [15-20 분]
- 마무리 및 폐회기도 (5 분)

***구체적인 일정은 경청회 행사를 준비하는 사목구/공동체가 정하게 됩니다.*

기도중심 경청회 개요

3 주 저녁일정

(매주 90 분씩**)

환영 차담, 친교, 출석 확인 (생략 가능, 30 분)

1 주차:

- 환영사, 행사 개요 및 개회기도 (10 분)
- 시노드 과정 개요 및 참가자 규칙 (10 분)
-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시간 (25 분)
- 소그룹별 발표 및 토론: **핵심 질문** (35 분)
- 마무리 및 폐회기도 (5 분)

2 주차:

- 인사, 기도 및 행사 개요 (10 분)
-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시간 (25 분)
- 소그룹별 발표 및 토론: **보조 질문 (1-2): 경청과 식별 / 공동책임과 참여** (40 분)
- 마무리 및 폐회기도 (5 분)

3 주차:

- 인사, 기도 및 행사 개요 (10 분)
-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시간 (25 분)
- 소그룹별 발표 및 토론: **보조 질문 (3): 기도와 성체의 거행/ 성령님께 기도 및 마무리 질문** (40 분)
- 폐회기도 (5 분)

***구체적인 일정은 경청회 행사를 준비하는 사목구/공동체가 정하게 됩니다. 각 주제와 질문은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규칙과 소그룹 토론 과정

효과적으로 경청하고 의사소통하기

P – PRAY and PONDER 말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숙고합니다. 내가 말할때 주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계셔주시기를 청하고, 앞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와, 주께서 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숙고합니다.

R – Take RESPONSIBILITY 책임있는 태도로 경청하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오롯이 내 책임이고, 남의 탓을하는 시험에 빠져들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과 감정들은 모두 각각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경청과 나눔을 위한 시간입니다.

A – ALLOW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참가합니다. 평소 대화를 함에 있어 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분이라면, 이 자리에서는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평소 말씀이 잘 없으신 분들께 차례를 먼저 양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노드 과정 중 우리는 모든 이들 - 특히 평소 소외된 이들 - 의 말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Y – YOU 나 자신의 생각, 감정, 사건과 편견들을 자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느끼는가?”

E – EMPATHY 공감하며 듣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 뿐 아니라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감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발언자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 스스로 발언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R – RESPEC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대로, 사랑으로써 서로를 존중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말할때와 경청할 때 모두 상냥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임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기도중심 경청회는 결국 소규모 모둠 단위로 서로 경청하고 나누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라 해서 주장과 논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의 분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발표할 때, 나머지는 경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거나, 촉진자가 지목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의 촉진자가 여러 소그룹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행사 개요도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촉진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을 경우, 참가자들은 스스로 순서를 정해 (예: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말씀하실 준비가 안되신 분은 순서를 넘기셔도 됩니다. 각 테이블에 보조진행자가 배정된 경우 진행자는 시간과 순서를 배분해서 모든 분께 말씀할 기회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테이블별 보조진행자와 필기자의 역할

보조진행자들에게는 각 테이블에서 대화를 진행시키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테이블별 보조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진행자들은 각 참가자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발언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이 기도와 묵상 시간에 받은 영감과 통찰들을 소그룹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각 테이블에서 한명의 자원자가 토론 내용을 필기하게 됩니다. 발표와 토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각 기도중심 경청회의 소그룹별 필기 내용을 취합해 교구/공동체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각 교구/공동체별 1 부가 준비되며, 기도/경청 경험을 요약하고 주요 순간을 공유하는 보고서입니다). 각 교구/공동체의 보고서는 다시 대교구 시노드팀에게 보내지며, 각 교구/공동체 보고서, 지역 모임 보고서와 온라인 설문지상 피드백을 취합해 대교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기도중심 경청회 질문지 - 소그룹 토론용

애틀란타 대교구는 교구/공동체의 기도중심 경청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등 여건에 따라 각 교구와 공동체는 다음 질문지를 각색,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시노드 예비문서와 편람 상에 제시된 주제와 질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 제시된 추가 질문 중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교구/공동체 기도중심 경청회와 지역 모임에서 얻은 피드백을 보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archatl.com/synod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문도 같은 주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근본 질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개별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

- 이 "함께 걷기"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떠한 경험들이 떠오르는가?
- 우리 교구/공동체 내에서 어떤 즐거운 경험이 있었는가? 함께 걷기, 또는 교구/공동체 생활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에 있어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이나 방해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의 개인적 성장을 장려하시는가?

보조 질문

(1) 경청과 식별

경청은 첫 번째 순서이지만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을 요구한다. 시노드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전 공동체의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성령님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경청에 의존하는 과정입니다.

- 나는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목소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 이탈자들 등)? 이 변방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어떻게 편견 없이 경청할 것인가?
- 우리 교구/공동체는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경청과 나눔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와 주기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어떤가?
- 우리는 우리 교구/공동체 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식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협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2) 공동책임과 참여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봉사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모든 세례받은 이들은 교회의 사명 - 즉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 - 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 우리 교구/공동체, 나아가 사회에서 용기있고 책임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 교구/공동체의 회원들은 복음의 선포라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부름받고 어떠한 권능이 주어지는가?
-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고 참여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해요소들이 있는가?
- 우리 교구/공동체가 사명을 위한 팀워크와 공동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기도와 성체의 거행

'함께 걷기'는, 공동체가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에만 가능하다.

- 기도와 전례 거행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교구/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의 삶과 사명에 영감을 주고 이끌어 주는가?
-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 미사, 성시간, 성서 공부 모임 등)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 교구/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어떠한 영감을 주는가?
- 성체성사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성체성사란 나의 삶과 행동에 어떠한 영감을 주는가?
- 모든 신자들이 기도, 예전과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마무리 질문 - 성령님을 경칭하기

각 소그룹별로 5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오소서 성령님"의 기도나 즉흥적인 기도로 성령의 강림을 기원하시고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참가자별로 돌아가시면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거나, 기도를 올리신 뒤 나의 마음에 남은 통찰을 하나씩 말씀하시겠습니다.

**** 추가 질문 (생략 가능) - 아래 추가 질문들은 위에 제시된 내용과 통합해 사용하거나, 교구 외 교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관해

-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은?
- 하나님과의 관계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은?
-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교회"나 "신자 됨"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은?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 교회가 대화를 장려하는 방법들과, 교회가 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교회가 다른 기독교인과 함께 걷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노드성과 관련된 기타 주제들

- "권능"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경칭"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식별"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교회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행동이 어떻게 취해지는 지에 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시노드성은 변화와, 양성과 지속적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요구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 시노드 [예비문서](#)와 [편람](#)은 추가 목상과 토론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를 위한 기도: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교회 집회의 통치 또는 식별(따라서 시노드)를 위한 성령께 기원하는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주교시노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회기는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뜻의 라틴어 원문 *Adsumus Sancte Spiritus* 로 시작하는 기도로 개회되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공의회, 시노드, 교회의 다른 회의들에서 이 기도를 바쳤고, 이는 세비야의 이시도로 성인(560 년경-636 년 4 월 4 일)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기도문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Adsumus Sancte Spiritus)의 원문은 주교대의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시노드 과정에 착수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은 공동체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를 강구합니다. 2021 년에서 2023 년에 걸친 시노드 여정 중에는 아래의 간소화된 기도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Adsumus Sancte Spiritus* 기도문의 원문은 시노드 홈페이지를 참조.

용어집

아래 용어집은 주교 대의원의 사무국에서 출간한 것으로,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ynod.va/content/dam/synod/document/common/resources/Glossary.pdf>.

Authority (권세)

신약 성서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구원의 힘을 ἐξουσία (엑수시아) 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 (δύναμις, 듀나미스) 안에서 만물에게 이 엑수시아를 행사하십니다. 엑수시아를 행사함이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광을 내리시는 일입니다 (요한 복음서 1 장 12 절). 사도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엑수시아를 부여 받았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28 장 19-20 절). 세례로써,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요한의 첫째 서간 2 장 20, 27 절),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아 (요한 복음서 6 장 45 절), 그리고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심을 받아 (요한 복음서 16 장 13 절), 이 엑수시아를 나눠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17 장)

공동체와 그 - 유일하신 참 목자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 신부들 간에는 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친교의 호혜성에 있어 그 말은 과업에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시노드나, 위원회나 회중은 그 적법한 신부들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의 중심에는 시노드적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구에서는 공동의 식별, 협의와 협업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과, 사도성과 가톨릭성의 보증인으로서 주교의 권한 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안을 풀어내는 것은 시노드적 과업인데 반해, 판단이라는 것은 사목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행사된 시노달리타스라면, 개인의 사목적, 사도적 권세의 협력적 행사와, 공동체 차원의 시노드적 식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69 장)

Baptism and Confirmation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세례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성사로,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되는 일입니다. 세례성사는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근본적 신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모든 세례성사를 받은 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빛을 세계 모든 곳으로 가져오는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서 28 장 19 절). 모든 세례성사를 받은 자는, 교회 내 직분이나 신앙에 대한 교육의 정도와 상관 없이, 복음화의 대리인입니다. 전문가들이 복음화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신자 나머지는 그저 수동적으로 복음화를 받기만 한다면 부족할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성사를 받은 자 각각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구하시는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이라면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긴 시간이나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점에 있어, 모든 가톨릭 신자는 전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제자”며 “전교자”인 것이 아니라, 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초대 제자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처음 마주하고는 곧 나아가 증거하며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요한 복음서 1:41).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말을 나누며 즉시 전교자가 되었으며,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조우 후에,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 습니다 (사도행전 9:20; 22:6-21).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의 기쁨, 120 장) 견진성사는 믿는 자들이 성령님이 선물을 온전히 받게 되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로써 우리는 세례성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 모든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외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근본적 소명을 보다 더 깊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15)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명대로 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맺은 이 부자, 부녀간 관계로 다른 이들을 성령으로써 초대해야 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Charisms (은사)

교회에서 주님의 엑수시아 (권능)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영적선물 (τα πνευματικά) 또는 은사 (τα χαρίσματα)로써 표현됩니다. 이러한 선물과 은사를 행사하는데 있어 우리는 객관적인 탁시스 (τάξις, 순서)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는 이 선물들과 은사들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도록 이들이 맺도록 의도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28-30,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11-13). 이 순서에서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하고 탁월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로 복음서 16:18; 요한 복음서 21:15). 실로 사도들은 신앙의 유산에 충실하게 교회를 이끄는 사목을 위임받았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20;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12, 14). 그러나 “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성령님께서서는 이유 없이,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부여하셔서 공동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4-11; 29-30;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7). 이 은사들은 항상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써 행사되어야 하는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25), 이는 최고의 선물, 즉 모든 선물을 주관하는 가장 높은 선물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31).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18 장)

Church (교회)

2 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학적 관점을 취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시노드적인 교회를 “역삼각형”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역삼각형의 구성원은 하느님의 백성들과 주교들인데, 이들 중 1 인, 즉 베드로의 후계자가 일체화라는 구체적 사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지점은 기단 아래에 위치합니다. “교회의 구성적 요소로서 시노달리타스는 계층적 사목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해석적 틀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로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바 (마태오 복음서 16:18), 이 중 사도 바울은 ‘반석’으로서 신앙의 형제들을 “건진”하는 역할을 지게 되었습니다 (루카 복음서 22:32). 그러나 이 교회는 역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 꼭지점이 기단과 위치가 바뀌어있습니다. 권능을 행사하는 이들을 우리가 영어로 minister 라고 부르는데, 그 어원대로 이들은 실로 종노릇하거나 수발 드는 사람들입니다.” [68].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57 장)

Consensus (합의)

시노드적 과정의 맥락에 있어 합의란 의견의 완전일치나 민주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를 그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소그룹이나 하느님의 백성 전체

중 단지 한명의 말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문에 시노드적인 합의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친교의 정신으로써 함께 나아가야 할 공통의 길로 하느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식별하기 위해 서로에게 경청하는 과정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Consultation (협의)

이전의 시노드에서 협의는 주교대의원회의가 특정 주제에 관해 논하기 위해 로마에서 모이기에 앞서 신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노드는 이 “협의”의 경험을 확장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보다 경청하고 그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보다 시노드적인 교회가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로써 “협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참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서 이뤄지는 주교대의원회의가 교회의 시노드 경험이 전부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교구, 국가, 대륙,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온 교회에 울려 퍼지는 긴 과정의 절정에 주교대의원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Communion (영성체)

시노달리타스는 영성체로서 교회의 가톨릭성의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과 일체인 머리로 계시고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2-23),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수단인 충만함을 받습니다. 교회의 가톨릭성은 교회가 전 인류를, 모든 문화적 형태를 막론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 아래 데려오도록 모두에게 보내졌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시노드의 길은 교회의 가톨릭성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도모합니다. 즉 신앙 충만함이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방식을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이 신앙 충만함이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58 장)

Diocesan Pre-Synodal Meeting (시노드 전 교구 회합)

각 지역 교회는 시노드 전 교구 회합으로써 교구 수준에서의 시노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회합은 다양한 교구 회원들이 모여 저례를 거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구 수준에서 시노드적 과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시된 피드백을 경청하고, 지역 교회의 현실과 시대의 표적(징조)들에 관해 대화하고, 시노드적 대화 과정에서 교구의 성장에 관한 성령님의 부르심을 식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협의 과정은 지역 교회 내의 특정 공동체 (사목구나 청년모임 등) 단위로 이뤄지지만, 시노드 전 교구 회합의 목적은 교구 전체에 대해 대표성 있는 하나의 ‘단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수자들과 소외된 자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함께 경청하고, 반성하고 식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편람 제 4 부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설명한대로, 시노드 전 교구 회합의 결과를 '교구종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Diocesan Synodal Team (교구 시노드팀)

교구 시노드팀에게는 지역 주교의 지휘 아래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를 실행, 조정,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은 교구 담당자 (contact person)와의 협업하에 이뤄집니다. 시노드팀은 또한 지역 수준 경청회를 기획하게 되는데, 행사는 소외된 자들을 포함한 가능한 많은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소 잘 귀기울이지 않은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노드팀은 시노드 과정중 다양한 모임, 행사와 회합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목적은 바로 지역 수준에서 참된 시노달리타스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청회 개최 후 시노드팀은 참가자 경험담과 피드백을 기반으로 '교구종합' 문서의 준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Discernment (식별)

시노드 과정은 의견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식별' 단계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식별' 하기 위해 서로를 경청하게 됩니다. 이런 식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식별함으로써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위한 변영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별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지만, 우리 인간 또한 (비록 단순한 방법을 통한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의 방법에는 기도, 묵상, 내면의 기질에 유의하기, 그리고 진실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와 의미있고 경청하고 대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식별을 통해 향후 형제애, 치유, 친교, 사명 등 열매를 맺을 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식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Ecclesial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시노달리타스란 교회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는 함께 걸음의 여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노드 과정은 지극히 교회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본연의 기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느님의 백성들이 함께 여정에 나서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노드적으로 함께 걸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와 보다 깊이 있게 친교할 수 있으며, 공통의 사명에 보다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함께하는 여정에 필수적인 원칙이 있는데, 바로 "sentire cum Ecclesia", 즉 교회와 함께 느끼고, 헤아리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자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여행을 함께 있어 하느님의 백성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걷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56 장) 시노드의 여정은 개별적인 신자, 사목구나 교구로서 밟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노달리타스는 온 교회의 함께하는 여정이고, 하느님의 백성들 모두에 걸쳐 경험되고 살아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Episcopal (주교적, 감독하는)

Episkopos 라는 헬라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양떼를 '감독'하는 자를 이룰 때 사용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였으며, 이 사도전승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가톨릭 교회가 임명하는 주교들로 이어져왔습니다. "주교들은 그 부여된 사도적 권능을 각자의 목회적 돌봄에 놓여진 각각의 교회를 가르치고, 성화하고 주관하는데 행사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56 장) 그러므로 "주교적" 이라고 하면 전 교회적 친교 하에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양떼를 이끄는 주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교는 피라미드의 꼭지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봄에 놓여진 신자들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교회와는 평등한 주교들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회합인데, 그 목적은 주교들 간의 형제애와 지역 교회들의 일치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Instrumentum Laboris (의안집)

의안집은 주교대의원회의에서 이뤄지는 토론과 개입과 대화의 근거를 사용하는 일종의 "작업 문서"입니다. 주교 대의원회의 사무국에서 편찬한 문서입니다. 과거의 시노드와는 달리, 이번 시노드 과정은 의안집의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국가차원에서 작성되었으며, 교구 차원의 경청회 과정 후 편찬하게 됩니다. 그 초안을 대륙 차원에서 이뤄지는 회의에서 "작업 문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륙별 회의를 거쳐 두 번째 초안이 준비되고, 이 두 번째 초안을 2023년 10월에 있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Local Church (지역 교회)

시노드 과정의 맥락에서 "지역 교회"란 각 교구, 총주교구, 성직 자치단 등의 교회 기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역교회는 사목구, 교구, 운동 등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노달리타스가 행사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전례의 거행, 특히 주교와 그 사제들과 봉사들이 주재하는 하나의 성찬, 하나의 기도예에 온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탁월한 현현일 것입니다" [90].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77 장)

각 지역 교회의 특유적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연결고리들과 이 연결고리들이 형성하는 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방식들을 매개로 그 교회의 일상생활에 시노드적 방식들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들과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기반으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특정한 인간적,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됩니다. 이렇게 구현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봉사하는 시노드적 구조들을 기민하게 개시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강조하셨듯, "이런 조직들이 그 '기반'과의 연결을 유지한 상태로, 각 개인들과 그 일상적 문제들을 다루는데서 시작해야만, 비로소 시노드적인 교회가 모양을 갖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91].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77 장)

Listening (경청)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다음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시노드적인 교회는 바로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 믿음의 백성들과, 주교들과, 로마의 주교들이 모두 서로를 경청하고, 다 함께 성령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는 경청의 이런 중심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111 장): 시노드적 대화는 경청과 말하기 모두에 있어 용기를 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논박하거나 반박하는 언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분별을 위해 성령님께서 제시하신 것들을 서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공동선을 위하여"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7)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은 성령님께서 제시하신 것들에 대한 열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Mission (사명)

교의 헌장 「인류의 빛」은 교회의 성질과 사명에 관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곧 영성체인데, 여기에는 시노달리타스를 회복함에 따르는 각종 신학적 전제들이 있습니다. 즉, 신령한 성사를 통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교회란 천국이라는 교향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라는 것, 그

순례에 있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주교단의 성사성과 로마 대주교와의 교계적 친교에 있어 그 권한의 평등에 관한 교리들이 그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40 장)

Parrhesia (파레시아, 담대함)

파레시아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오심으로써 불러일으키신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적 용기를 가지고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초대교회 당시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똑같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시노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화의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때 담대하게 말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성령님의 영감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파레시아가 필요합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17 장)

시노드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하는 파레시아란, "하나님의 지평의 광활함에 들어갈" 신뢰와, 솔직과 용기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되게 하심이라는 성사가 계시도록 하고, 따라서 인류가 혼돈과 분산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69].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노달리타스를 살고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환희의 원천이며,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하나의 기쁨제고, 사명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향한 발판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121 장)

Participation (참여)

시노드적 교회라는 것은 참여와 공동책임의 교회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행사에 있어 교회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을 통해, 그리고 교황 성하의 이고심에 따라서,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라는 소명을 받았고, 서로 섬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시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제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권능을 통해 교회라는 몸을 완성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나 대리인으로서 권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67 장) 물론 의결적 투표권과 협의적 투표권의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노드 과정의 각종 회합과 모임에서 제기된 의견들과 여기서 이루어진 표결의 중요성이 덜한 것도 아닙니다. 협의적 투표권을 회합어로 "votum tantum consultivum" 이라 합니다. 그러나 협의적 투표권을 사람들의 민법에 따라 해석하게 된다면, 실제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못합니다. 각종 회합과 모임에서 행사된 협의적 투표권은 이보다 비중 있습니다 [81].

시노드적 회합에서 이뤄지는 협의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협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합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공동체로서, 성령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신앙의 눈을 통해 이 시대의 증후들을 읽어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노드적 교회에서는 전 교회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경청하고, 분석하고, 대화하고, 식별하고,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최대한 합치하는 사목적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소명을 받았습니 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데 있어, 사제들은 신자들의 시각과 경험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사제들은 특정 상황에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을 구하고 취한 후에야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82].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68 장) 동시에, 시노드 여정은 교회법이 규정한 참여보다 훨씬 광범위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제 2 바티칸 공의회는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계층적인 구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순례하는 백성들이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하나됨을 향해 이끄시면서, 우리가 서로와 하나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인류의 빛, 9) 하나님의 백성의 첫 현현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들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마태오 복음서 28:19)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중 가장 당신의 민족인 백성들의 일원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거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2:9-10) 교회의 사명은 역사를 통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곧

하나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 입니다 (인류의 빛, 1)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합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요한 복음서 10:16)

Power (권능, 뉘나미스)

신약 성서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구원의 힘을 *ἐξουσία* (엑수시아) 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 (*δύναμις*, 뉘나미스) 안에서 만물에게 이 엑수시아를 행사하십니다. 엑수시아를 행사함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광을 내리시는 일입니다 (요한 복음서 1 장 12 절). 사도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엑수시아를 부여 받았습니 다. (마태오 복음서 28 장 19-20 절). 세례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요한의 첫째 서간 2 장 20, 27 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요한 복음서 6 장 45 절), 그리고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심을 받아 (요한 복음서 16 장 13 절), 이 엑수시아를 나눠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17 장)

보편교회의 차원에서 시노드적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교황 바오로 6 세께서는 주교대의원회의를 도입하셨습니다.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 성하 직할의 보편 교회를 위한 주교들의 상설 협의회"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로마 대주교에 의해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직입니다 [41]. 이 기구의 역할과 목적은 주교대의원회 중 친교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41 장)

Sensus fidei (신앙 감각)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은 믿는 자들의 신앙 감각 안에서 현현됩니다 [65]. "세례 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성화하는 힘이 작용하여 복음화를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도우에 힘입어 거룩해집니다. 이는 믿음에서 오류가 없게 합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여도, 하나님 백성은 믿을 때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진리 안에서 이끄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인류에 대한 당신 사랑의 신비의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전체에게 신앙의 본능, 곧 신앙 감각 (*sensus fidei*)를 심어 주시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인지를 식별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의 현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적인 실체들과 어떤 공본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그러한 실재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혜도 주십니다.” [66]. 이와 같은 공본성은 “sentire cum Ecclesia”, 즉 교회와 함께 느끼고, 헤아리고, 인식하는 것에서 보여집니다. 이는 신학자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여행을 함께 있어 하느님의 백성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걷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67](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56 장)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표적(징조))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가 “시대의 표적”을 읽는데 있어 중요한 진일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교회가 그 사명을 진공 속에서, 즉 그 주변 세계의 현실에서 분리된 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모든 시간과 장소의 인간들을 서로와, 하느님께 결속시키기 위해 세계 한 가운데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구들, 현실들, 그리고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빛 속에서 시대의 표적을 읽어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시기의 정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대의 표적을 읽는다는 것은, 교회와 인류 간의 깊고 깊은 연대를 실현하는 한 수단입니다.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기쁨과 희망, 1)

Synod (시노드)

“시노드는 권장이 규정하는 특정 절차들에 따라, 관계기관들에 의해 교회가 모이는 시노드적 사건들의 과정이며, 각 사건들에는 지역적, 광역적 그리고 보편적 수준에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고, 이 사건들은 로마 대주교와의 협동적 통공 속에서 주교들이 주재합니다. 시노드의 목적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식별하는 등의 특정 질문들을 다루고, 교회의 복음화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방향을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시노달리타스, 70 장)

Synodal Process (시노드적 과정)

시노달리타스는 하나의 사건이라기 보다는 현재진행형인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현재 교회가 착수한 시노드적 과정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은 이 편람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교구 단계고, 이어 국가별 단계, 대륙별 단계가 이뤄지며 마지막 단계로는 로마에서 이뤄지는 세계주교시노드가 있습니다.

Synodality (시노달리타스)

국제신학위원회의 2018 년 정의에 따르면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함과, 하느님의 백성들의 전교적 여정에서의 성령님의 행위” 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시노드적 교회를 “경청하는 것이 느끼는 것보다 큰 것임을 아는, 경청하는 교회”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어, “이는 모든 참여자들이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상호적인 경청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께, 진실의 성령님께 경청해야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주님께서 제삼천년기에 교회로부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교대의원회의의 50 주년 기념행사에서의 연설, 2015 년 10 월 17 일)

시노달리타스는 모두에게 경청할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한 성령님과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경청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식별하고 그 길을 함께 걸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이를 함께 걷고, 서로와의 통공 속에서 우리의 사명적 소명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여정에서 서로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Vocation of All the People of God (하느님의 모든 백성에 대한 부르심)

하느님의 당신의 모든 백성에 대한 부르심은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 즉 평신도와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은 그 고유의 역할과 은사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따른 책임 속에서 협업하게 됩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협업적 책임, 자문과 평신도 참여의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삶과 활동에 있어 주어진 능동적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평신도들의 활동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목자들의 사도직도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0)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참가자용 안내서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구원 사명 전체를 자기들이 독점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며 오로지 모든 이가 나뉘대로 공동 활동에 한마음으로 협력하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빛나는 임무임을 압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제 30 장).

Vademecum (편람)

편람은 '공동합의성에 관한 시노드'의 기반이 되는 경청과 식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백성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편찬된 안내서입니다. 편람은 교구 (또는 사목구)의 연락인이나 시노드팀으로 지정된 이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하나의 자극제이기도 하면서 실제적인 안내서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은 각 지역 교회가 고유의 문화, 전통, 역사와 자원을 가짐을 유념하고 제시되었습니다.

Vatican II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 요한 23 세께서는 교회 역사상 21 번째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이로써 전세계 주교들이 1962 년과 1965 년 사이 바티칸에서 모였습니다. 공의회가 개막 연설에서, 교황 요한 23 세께서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기독교 교리 전부가, 그 일부라도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열정으로, 그리고 평화로움과 고요함 속에서, 또한 트리엔트와 바티칸의 공의회에서 특히 보여지는 그 전통적이고 엄밀한 개념성과 표현으로써,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 의해 새로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